

연중 제 2 주일

기도서 331 편

제 1 독서 : 이 사 62, 1-5
 제 2 독서 : 고린 전 12, 4-11
 복 음 : 요한 2, 1-12

순정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국
 인쇄인 관리국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우리의 삶은 곧 기적이다.

김 병 환 신부

우리는 가끔 생활 주변에서 기적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아마도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불가사이한 현상, 종교적으로 신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생기는 불가사이한 현상의 기적을 모두가 은연중에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각박한 생활 속에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일수록 이런 경이로운 현상을 더욱 기대하게 되는가 보다. 몇 일 전 홍보국장 신부님과 봉쇄수도원인 성글라라 수녀원을 방문했다.

넓은 대지에 앞 떨어진 앙상한 가지의 나무들, 빨갛게 녹이 쓴 먼지진 몇 채의 집, 건축하다가 중단한 덩그러진 건물, 이 모든 것들이 무언가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분위기를 보다는 인적이 없는 깊은 침묵의 삭막함을 느끼게 해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낀적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를 반겨주시는 수녀님의 밝은 표정, 그 표정이 너무나 맑기에 이것이 정녕 인간의 아름다움이며, 삶의 행복이며, 기쁨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다.

인간적인 욕망이나 즐거움이 전혀 없는 이런 한적한 곳에서 내일 먹을 쌀조차 넉넉치 않아 누군가 가져다 주면 먹고 없으면 굶어야 하는 생활, 그러면서도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무한한 행복을 느끼는 그분들. 이것은 틀림없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적이리라. 진정 우리 교회의 백박은 이런 곳에서 뛰고 있으며 우리 교회의 면 장래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발견되는 기적은 자연 현상의 경이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조용하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양노원에서 할머니들의 오물을 받아내며 어머니처럼 섬기는 분들의 생활, 나병환자들의 고통을 짜내고 약을 발라주는 분들의 생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기적들이 아니겠는가. 내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피로와하는 고통을 나누는 따뜻한 사랑의 생활 속에서 기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때를씩인 인간 삶의 자리인 잔치집에서 조용하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힘의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다. 내 이웃을 마음깊이 받아들이고,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면서 내 이웃의 아름다움을 보고 같이 기뻐하는 우리의 생활 속에 하느님의 힘은 넘칠 것이고 이러한 생활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일 것이다.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을 위해 투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내 이웃의 약점을 들어내어 고통을 주는 삶, 이것은 정녕 인간의 삶은 아닐 것이다. 기적은 바로 다름아닌 우리 자신의 삶이기 때문이다. <서학동 전주교회 주임신부>



구경꾼 띄엄띄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에 답해 “감사합니다”/연도(沿道)에 구경꾼 띄엄띄엄...「무표정」으로 맞아—이상은 일본 수상 나카소네의 한국 방문에 대한 신문기사의 작은 제목들이다. 앞뒤가 맞지도 않고, <구경꾼>이라는 표현이나 「무표정」을 강조한 표현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다시 생각나게 한다.

본문 기사를 간추리면 이렇다. —대통령은 청와대를 찾은 일본 수상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했다. 그에 앞서 일본 수상이 서울시내로 들어설 때에는 “공항 입구에 2백여명의 시민이 무표정한 모습으로 일행을 지켜보았을 뿐 시내까지의 연도에는 별다른 환영 플래카아나 환영객이 없었다”고 적고 있다. 다른 신문은, 일본 수상의 방한 전날에는 광화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일부가 찢어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일본에 의해 저질러졌던 36년간의 혹독한 식민통치/60년대에 몇푼의 매일 청구권을 내세워 철폐한 평화선/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고사리 국민학생들까지도 경정대며 날랐던 벽돌 한 장 씩으로 모은 4백억원 가까운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한 성금/식민지배와 교과서문제의 언급없이 이루어지는 만남/40억불의 경제협력(차관 공여)에 고사세인 일본...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지만, 지금은 왜 이렇게 분통이 터지는가.

명분과 실리, 둘다 가벼이 다룰 수 없는 것들이다. 명분만 찾다보면 가난의 구렁에서 헤어나기 어려울지는 모르나 의로운은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실리를 중하게 여기면 당장은 부드럽고 넉넉할지는 모르나 어둡고 뱀새나는 뒷골목으로 빠져들기 십상이다. 개인이나 국가로 보아서도 그렇고, 신앙생활(교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차례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83. 1. 11)

순정이 산책



전주교구 순원사업

□ 그리스도교 일치 기도주간(1. 18~25)

기도를 통한 영적 일치 운동

교회일치는 그리스도의 영원이며, 성삼위 일치 의 표징이며, 성부께서 그리스도와 신자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증명하는 보증이기 때문에(요한 17, 23 참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의 소망이다.

그러나 오늘과 같이 크리스찬들이 갈라져서 하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화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신자라면 제일치를 위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다행하게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서로 갈라진 그리스도교 형제들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마음속에 회심과 일치의 소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는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의 그리스도교 일치에 대한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치의 재건을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 사이에 촉진하자는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중대한 목적 중의 하나」라고 서론에서 언급하고 있다. (일치교령 1항 a. 이하 같음)

“일치운동이라고 하면, 교회의 여러 가지 요구와 시대의 요청에 따라 크리스찬들의 일치를 위하여 일어나고 계획되는 활동과 사업을 지칭한다. 즉 첫째로는, 갈라진 형제들의 상태를 공평하고 옹기 표현하지 못함으로써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말과 판단과 행동을 제거하려는 모든 노력을 말한다... 마침내 모든 이가 스스로 교회에 관한 그리스도의 뜻을 얼마나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를 반성할 수 있으며, 당연히 요청되는 쇄신과 혁신의 노력을 항구히 계속할 것이다... 가톨릭신자들이 일치의 목적으로 갈라진 형제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사정으로 그들과 접촉하며, 먼저 그들에게 접근해 가야 하겠다”(4항 b, d).

이러한 의미에서 공의회는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 날 저녁에 제자들의 일치를 위해 기도하신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리스도교일치를 위한 기도를 강조하는 「영적 교회 일치운동」을 장려하였다(8항). 이 기도는 가톨릭 신자들이 자기 마음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교인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고 갈라진 형제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부당한 선입관을 벗어버리고 참다운 이해심을 지니도록 도와 준다. 이러한 그리스도교 일치 운동을 위한 기도와 일치 주간은 신심행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부터 경건한 가톨릭 신자들에게 의해 실천되어 왔다.

이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일치주간 동안에 기도를 통해서 영신적 성숙에 도달해야 한다. 이러한 성숙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대해 원하시는 일치를 깨닫고 다른 그리스도교 형제들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 일치를 살아가는 사람들

메제 공동체

유럽을 여행하는 신심 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메제를 방문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곳을 다녀온 사람들이 받은 인상때문에 메제에로 향하는 마음은 더욱 깊어진다. 물질 문명에로만 치달고 있는 이 세대에, 더욱이 어더로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젊은 세대에게 메제가 보여주는 이미지는 매우 강하다.

메제란 어떤 곳인가? 메제는 프랑스 샤론쉬르 지방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써 평야와 포도밭이 많은 구릉지대이다. 얼핏 보면 이 마을도 이 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마을이다. 메제 부근에는 역사 깊은 크루니 수도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12세기에 세워진 교회를 중심으로 기와집들이 물려 있다. 메제 마을은 1940년 이래 「메제」를 성(姓)으로 하는 수사들의 공동체 본부가 되어 왔다.

“주 그리스도는 그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당신을 택하셔서 당신이 교회 내에서 형제애의 표징이 될 것을 바라신다.” 이 귀중한 수사가 종신 서원을 할 때마다 읽혀지며, 이것은 또 수사들 생활의 목표를 잘 요약하고 있다.

창설자인 로제 수사가 세계 제2차대전 발발 직후 메제에 처음 왔을 때 그는 혼자였다. 당시 프랑스는 남부 비점령 지구와 북부 나찌 점령 지구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 두 지구의 분계선이 바로 메제의 북쪽 위를 지나고 있었다. 전쟁으로 인한 긴장과 고통의 상황은 로제 수사가 미래를 위한 공동체의 기지로서 메제를 선택한 요인중의 하나였다.

2년 동안 로제 수사는 자기의 집을 지하 저항 운동가들이나 특히 유대인을 비롯한 피난민들의 피난처로 제공했는데 그들은 점령 지역에서 자유를 찾아 스위스 등지로 가려는 사람들이었다. 1942년, 마침내 독일의 게슈타포가 그의 집을 습격했을 때 그는 제네바에 있었다. 그후 2년 동안 그는 메제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때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그의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수사로서 그의 일에 참여했다.

오늘날 수사들은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외의 15개국에서 가톨릭을 포함한 여러 종파에서 왔으며 그들은 공동생활을 이루기 위해 모든 크리스찬들의 눈에 보이는 일치를 추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교회의 사명이 모든 사람의 일치를 위한 누룩이라는 것을 재발견하려고 한다. 수사들은 독신생활, 모든 재산의 공유, 순명에 대한 서원을 한다.

현재 서울에, 메제에서 온 작은 공동체가 1979년에 들어와 있으며 갈라져 있는 크리스찬에게 일치의 생활의 표식이 되고자 하고 있다.

메제 공동체에 관한 책 (분도 출판사)

○ 메제 규칙(다양성 안에서의 일치) ○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의 품력 ○ 메제 젊은이들의 공의회 <성 태수 신부>

해외여행 업무개시
국제여행사 개설

전 일 관광

전화 6666~8

대한항공 국내외 대리점
결혼매절, 제주도,
신혼여행 안내

□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국내 최초로 시설
밝고
눈을 편하고 보호하는
시원하게

보안당 센터

구역전 오거리 전화 3032

윤(베드로) 종선

[SS] FASHIN 전주특약점

버킹검(로가디스, 소사이어티), 런네포그(세계적인 코트의 명문), 위크엔드(간이복), 피노키오(아동복) 켈린저(주니어복)

전 품목 40% 할인 판매

기간: 83. 1. 7~16일까지 10일간

전주 위크엔드 특약점(삼화약국 옆)

☎ 2-4451

주: 유 율리안나



□ 여성 14차, 남성 17차 꾸르실료

꾸르실료(Cursillo)란 참된 크리스찬 생활을 구축하기 위하여 일하는 운동이며 이 운동을 하는 이로 하여금 참된 크리스찬의 기본이 되는 것을 생활하게 하는 방법이다. (Cursillo=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공부를 시키는 단기 강습회란 뜻).

전주교구 꾸르실료(지도신부-김 병환 신부, 주간-김 병오) 사무국에서는 83년도 꾸르실료 교육을 다음과 같이 갖는다.

여성 14차: 2. 3(목) 오후 5시~6(일) 오후 7시

남성 17차: 2. 26(금) 오후 5시~3. 1(월) 오후 7시

수강료는 2만원이며, 수강 희망자는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여 여성은 1월 26일, 남성은 2월 16일까지 교구청 교육국에 접수해야 된다.

□ '83 예비신자 교리반 개강

1983년도 전반기 예비신자 교리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예년에 이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쁨에 함께 참여하도록 협조바랍니다.

일 시: 2월 3일(목) 오후 7시30분

장 소: 가톨릭 센터 3층

접 수: 당일까지 교육국에서 ※ 낮반(주부)은 수요일 오전 예정임.

□ 성탄 위문편지 및 위문금 접수

성탄과 새해에 국군장병을 위해 모아진 교구 신자 여러분의 정성은 다음과 같다.

정읍-144,200원, 창일동-10만원, 해성학교-16만원, 복자-10만원, 성심학교-5만원, 삼례-81,500원, 함열-5만원, 순창-2만원 (계 705,700원)

위문편지: 성심-300통, 함열-30통 (계 330통)

□ 대전 신학대학 부설 교리신학원

광주 대전 신학대학은 사목활동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인적 부족으로 다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이때에 이곳 교수 신부님들의 희생적인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1983년부터 2년 과정의 교리 신학원을 설립하였다.

교과목은 신학교 교육 과정에 해당된 과목을 거의 배려하여 2년동안 48학점으로 요약 이수하게 하였다.

학생 모집 요강은 아래와 같다.

1. 수업연한: 2년 2. 모집정원: 40~50명
3. 지원자격: ①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에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
② 영세받은 가톨릭 신자.
③ 수도회 장상 및 본당 주임신부 추천서.
4. 지원서류: ①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② 사진 3매(소명합판)
③ 원서대-1천원
5. 원서교부 및 접수일자: 1983년 2월 1일~3월 5일
6. 원서교부 및 접수처: 505 전남 광주시 쌍촌동 305 (광주 사서함 9호)
대전 교리 신학원(전화 5111~5)

요십이(493) 김병오

대학총장을 지낸 사람
장관을 살아먹은 사람

정당당수를 지낸
사람이 죽었구나!

죽음앞에는
권력도 소용이
없구나!

죽은후에
좋은소리들으려면

권력이 있다고
목에 힘주지 말고
올바로 살아야지!



의료효과의 선구자!

신비의 통로제

성모土龍센타

왜관(聖 베네딕트 修道會)

※ 간경화 및 위암은 직접 문의 바람

◎전북 총판: 전주 성모병원
3층 309호
전화 72-3925

◎제조공급처: 경북 칠곡군 왜관읍(수도원 농장)
전화 2-2626

나왔다! 신발명품

주부의 손(마늘 깎돌이)

본 회사는 신발명품 개발업체로서 사업에 뜻이 있으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공장: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06-1 삼례2421
전주 33092
대표 서정희(방지거)

각종 내의·타올·장갑
기타 잡화 도산대

안나상회

전주 소방서 뒤
중앙시장 입구
3-6156
이 엘리사벳

• 혼수(회갑) 옷감 | 도매상
• 특수 파티복 *
• 고급 침구류 |
• 각종 솜 일체
• 커벤지

서울주단

☎ 0453 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 마춤·대여

웨딩드레스·약혼복·연주복·부케·신부화장·비디오 촬영

신부의 집

동서관통로 서울신관은행 앞
전화 6951
정인기(논지도)



- ※ 일치주간(18~25일) : 모든 그리스도 교인들의 일치에 위해 기도합니다.
1. 꾸르실로 교육 : 여성 제14차(2월 3일~6일), 남성 제17차(2월 26일~3월 1일)
 2. 중고등학생 지도자 연수회 : 1월 28일~30일, 장소-가톨릭 센터, 참가비-8천원
자격-현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거나 할 의사가 있는 자.
 3. 사제 서품식 : 26일 오전 10시30분, 장소-중앙 천주교회
 4. 전주 M.E 웨딩 제 4반(군산지구) : 1월 17일 오후 7시30분
군산 M.E 가족은 엄준용, 양정남 부부 가정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5. 군옥지구 울드레아 : 16일 오후 2시 문율동성당
 6. 중고등학생 성서 세미나 : 26일 오후 1시, 회비-4천원, 장소-가톨릭 센터

(중앙)

주임 신부 문정현
수석 보좌 박인호
보좌 신부 한기호
사도 회장 김인협

전화 ⑤1711~3

1. 성모회 월례회 : 23일 공식미사 후 장남
 2. 안드레아반 교리반 모집 : 7월에 영세하는 안드레아반 예비자 모집합니다
 3. 초등부 영세 : 28일 어머니비사후, 첫고백 : 29일 2시 첫 영성제 : 30일 공식미사 중
 4. 초봉헌 : 2월 2일 봉헌축일이 화요일인 관계로 30일 공식미사 중에 2차루 준비하신 후 1차루는 제때초 봉헌하시고 1차루는 축성 후 가정에서 사용하세요
 5. 전체 어머니 피정 : 21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가톨릭 센터, 회비-2천원
 6. 성탄꽃 봉헌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 권세라피나 김기래, 양옥자, 소병문, 박서운, 이상민, 송전제지 이이상
 7. 고등학생 하루 피정 : 29일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대상-고등학생 전원(지도자, 켈 포함)
준비물-노트, 필기도구, 참가비 없음(점심 제공)
 8. 2켈 대회 : 서울 명상의집 (28~30일), 신청-박신부
 9. 고등학생 정기총회 : 16일 10시 반
지도자 정기총회 : 23일 10시 반
- 지난주 봉헌금 : 727,617원 교무금 : 519,500원

(노송동)

신부 ④0969 주임 신부 김용태
수.사 ⑦0732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1. 가을판공 교리 성적표 : "135점 이상 10명의 명단"
140점-박천수, 정인경, 138점-모보일, 김정순, 김상숙, 137점-박준근, 136점-김영록, 김완준, 135점-김규례, 이순연
(150점 만점에 응시자 평균점수 106,395점)
 2. 5개 공소의 집중교리 실시 : 17~23일까지
 3. 학생들 동계피정 :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4. 애령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5. 성가대 새 임원선출 : 단장-정원용, 부단장-김순영
총무-김상숙, 서기-정애영, 회계-김귀례
 6. 학생회 새 회장선출 : 회장-강원홍, 부회장-김영숙
 7. 차주의 전례담당
새벽미사 : 해설-박은경, 독서-①서용문 ②문정숙
공식미사 : 해설-은경순, 독서-①모보일 ②서성남
저녁미사 : 해설-이중관, 독서-①전제식 ②이
기도담당-박태복, 정원용, 제물봉헌-장성복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본당 365,350원 아파트 42,080원
교무금 : 본당 128,000원

(덕진)

주임 신부 김봉희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양상열

전화 ③2182번

1. 신앙강좌 등록신청 : 사무실에 수비되어 있습니다
예비자 교리신청은 22일 까지
 2. 중고생회장단 : 회장-소대성, 부회장-박정란, 김철
 3. 교리교사회장단 : 회장-박동양, 총무-이순애
 4. 성모회 월례회의 : 할머니들 꼭 참석하세요
 5. 반석회 월례회의 : 오늘 공식미사 후 1층 회의실
 6. 감사 : 성수대 (20만원 상당) 기도-덕진사건관
 7. 청년회 발족 : 젊은이들 많은 참여 있으시길...
 8. 83년 봉헌금 수입은 신축헌금+교무금=(봉헌금)
- 지난주 봉헌금 : 423,350원

(복자)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조성호

전화 ⑤5238번

1. 애령회 : 19일 오전 10시, 애령회원들 꼭 참석하세요
2. 학생회 임원개편 : 회장-서봉수
부회장-김진홍·유선희

3. 자모회 임원개편 : 회장-조마리아, 총무-신재마
 4. 그리스도교 일치주간 : 18일~25일
 5. 82년 봉헌금 미수 완납바랍니다
 6. 성녀 아녜스 동정 순교축일 : 21일
 7. 가톨릭 카렌다 판매중 : 가정마다 1부씩 구비합니다
 8. 갈베신부님 시성식 슬라미 ① 상영 : 16일 저녁 7시 반
 9. 금주전례 : 해설-김재식, 독서-①장기연 ②조영호
기도-김진우
차주전례 : 해설-최정순, 독서-①박상기 ②천진
기도-정운주
- 지난주 봉헌금 : 481,155원

(서화동)

주임 신부 김명환
사도 회장 황인규

전화 ②2276번

1. 할머니 모임 :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서모임 발족 : 30대~40대 남자 매월 첫째주 금요일과 셋째주 금요일 저녁 7시, 많은 성원 바랍니다
 3. 교무금 수입 : 83년도 교무금 미신입하신 분께서는 수히 신입하세요
 4. 차주전례 : 독서-①차상열 ②김환기
- 지난주 봉헌금 : 254,835원 교무금 : 139,500원

(숲정미)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③9567 사도 회장 김수겸

전화 ⑦7366

1. 성령기도회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2. 예비자교리 : 매주일 공식미사 후와 수요일 오후 7시
 3. 학생회 피정 : 19일~20일 (2일간) 참가비-1천원
쌀(라면 한봉지), 장소-구 유치원
 4. 교무금 : 신년도 교무금 신입하시고 미수금 완납바람
 5. 금주전례 : 해설-홍성조, 독서-①이종상 ②김창영
기도-노재두·신순영
차주전례 : 해설-홍성조, 독서-①장삼 ②강원모
기도-남상용·이철수
- 지난주봉헌금 : 132,055원 교무금 : 347,250원

(전동)

주임 신부 김범준
보좌 신부 박이종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이종두

신부 ⑥208
전화 ③222

1. 사도회·성화회 : 공식미사 후
 2. 교미시음 : 오후 2시
 3. 평일 아침미사 : 1월 22일까지 없음
 4. 보좌신부님 베델성서 교육차 서울가심 : 15일 동안
 5. 자모회 단합대회 : 19일-수암온천, 많은 참석 바람
 6. 성령기도회 : 매주 토요일
 7.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박중주, 독서-①김동연 ②최병래
공식미사 : 해설-서정옥, 독서-①이영태 ②장금태
저녁미사 : -경양수, 독서-①김동수 ②변해식
 9. 신학생 후원회 조직 : 회원 1인당 1천원, 모든 신자
 10. 유일학교 6학년 공소방문 : 17일~18일 (1박2일)
- 지난주 봉헌금 : 596,005원 교무금 : 477,500원
감사헌금 : 김재마 700,000원

(파티마)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황희상

신부 ②0915
수녀 ②4804

1. 1월 7일 성모회 정기총회 무사히 끝났습니다
간부 이동 : 성모회 총무-송율리아
 2. 선교분과위원회 : 오늘 밤 미사 후
 3. 레지오쁘레시디움 단장님들 모임 : 21일 밤 7시30분
 4. 중·고학생회 새임원 선출 : 17일 간수고하시겠습니다
 5. 본당 대학생들 전원 참석을 바람
한번 모여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 봅시다
 6. 교무금 수입 : 금월 마지막 주일까지 안하신 분 본당 사도회의 결정에 따라 주십시오
- 지난주 봉헌금 : 223,870원 교무금 : 59,000원